

## 국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친 우리 당의 령도업적

김 성 욱

우리 당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 의거하여 이 땅우에 천하제일강국을 보관듯이 일떠세울 원대한 구상을 펼치고 국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는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존엄높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일떠섰으며 사회주의강국의 위력을 떨치며 새 세기 지식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에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시련의 천만고비를 결사적으로 이겨내며 국력을 강화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것은 다름아닌 우리의 후대들이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에서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나라의 국력은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로 결정되는것이 아니다.

국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친 우리 당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져 정치사상강국의 위력을 온 세상에 떨친것이다.

사상과 정치의 사회생활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며 따라서 사회주의의 정치사상진지를 튼튼히 다지고 정치사상적위력을 강화하는것은 나라의 국력강화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우리 당은 우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였다.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대하여 책임지고 있는 사회주의집권당이다. 당을 강화하는것도,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것도 결국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전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여 사상과 신념의 결정체로 다지는것을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기본책으로 보고 수령의 혁명사상과 당정책에 배치되는 이색적인 사상조류와 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 당안에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그 구현인 당정책박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절대로 끼여들지 못하게 하였다.

전당적으로 새로 작성발표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에 대한 토의사업을 심화시켜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할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와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워 사소한 우여곡절이나 편향도 없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세기와 세대를 이어 계승하였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혁명적성격을 굳건히 고수하였다.

우리 당은 또한 당사업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키고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였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상과 뜨거운 정으로 굳게 뭉쳐진 우리의 일심단결은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큰 재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력사적인 진군길에서

당사업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키며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고 주체조선의 참모습인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사업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킬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4(201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연설에서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앞으로도 무한한 활력과 왕성한 열정으로 인민을 위해 정을 다하는 헌신의 당, 변함없는 어머니당으로 자기의 무겁고도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나갈것이며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기의 본분에 무한히 충실할것이라고 확인하시였다.

당창건 70돐 경축행사들을 통하여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자랑스러운 우리 당의 력사가 긍지높이 총화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해나가려는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가 만방에 힘있게 과시되였다.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을 혁명적당풍으로 하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104(2015)년 8월 라선땅에서 기적이 창조되었고 주체105(2016)년에는 해방후 기상관측이래 처음 보는 전대미문의 대재앙이 휩쓸었던 조국의 북변땅에 사회주의선경거리, 선경마을들이 일떠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당조직들이 어머니된 심정으로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빛내여주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혁명렬사유자녀들과 전쟁로병들을 비롯한 핵심군중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들이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받드는데서 언제나 대오의 기수가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 청년강국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도록 하시였다.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인 청년들과의 사업을 중시하고 청년들을 시대와 혁명의 주인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전략적로선이고 방침이며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청년절을 맞으며 청년절경축대회를 성대히 진행하도록 하시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당시) 제4차 초급일군대회,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들을 련이어 진행하여 청년들을 조선로동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특히 주체105(2016)년 8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독창적인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치로 주체의 청년강국건설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수놓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리정표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계기로 되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동맹에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당창건 70돐까지 청년들의 대기념비로 훌륭히 일떠세울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고 여러차례 건설장을 찾

으시여 청년들의 영웅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주인이라는 새로운 시대어로 우리 청년들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워주시였다.

오늘 당중앙이 가리키는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나아가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과 청년들앞에는 광활한 미래가 펼쳐져있으며 조선청년운동의 전도는 끝없이 양양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온 나라를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굳게 뭉친 혼연일체의 대가정으로 꾸려나가지였다.

새집들이한 살림집들을 찾으시여 령도자와 인민이 한가정된 혼연일체의 화폭을 펼치고 우리 인민들속에서 발휘되는 아름다운 소행을 널리 발양시키도록 하시며 사랑의 친필회답서한을 보내주시여 온 사회를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꾸려나가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인민사랑의 정치와 당을 어머니품으로 믿고 따르는 인민들의 뜨거운 충정이 하나로 되어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의 뉴대가 새로운 높은 경지에 올라서고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위력은 백방으로 강화되게 되였다.

국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친 우리 당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나라의 군력을 비상히 강화하여 사회주의군사강국의 위력을 세계만방에 높이 떨친것이다.

군력은 국력중의 제일국력이다. 군력을 핵심으로 하는 국력을 천백배로 다져나가는데 혁명의 승리가 있고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이 있으며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다.

우리 당은 우선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밑에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왔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임무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결정적승리를 위한 근본담보로 내세우고 군력강화의 4대 전략적토선과 3대과업관철으로 군인대중을 불러일으켜 모든 인민군장병들을 백전백승의 전략전술과 대담무쌍한 공격방식, 완벽한 실전능력을 체득한 진짜배기싸움군들로 튼튼히 준비시키였다.

우리 당은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최고사령관의 군대로 만들고 전군을 최고사령관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진정한 전우부대로 꾸려나가는데 커다란 힘을 넣었다.

《전군이 진정한 전우가 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화선전호가에서 병사들과 생사를 같이하는것을 군령도의 철칙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1(2012)년 1월 1일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시여 군부대장병들과 역세계 두팔을 끼고 어깨를 견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그날부터 군중, 병종들과 단위들을 찾으시여 위대한 령장의 거룩한 사랑의 자욱을 남기시였다.

주체101(2012)년 8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와 더불어 우리 당력사에 길이 빛나고있는 감나무중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녀병사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고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섬방어대들을 시찰하시면서 군인들과 가족들에게 하늘같은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최대열점지역인 판문점과 무도, 장재도방어대는 물론 위험천만한 까칠봉초소까지 찾으시여 군인들을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전군이 최고사령관의 전우부대로 강화되어 무적의 위용을 떨치게 되였다.

우리 당은 또한 전군에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도록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에서 변화되는 환경에 맞게 전법들을 연구완성하고 다양한 형식의 훈련들을 적극 조직진행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군인들이 훈련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훈련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훈련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와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들도 중대, 대대훈련에서부터 질적변화를 가져오고 인민군지휘성원들을 완벽한 실전능력을 갖춘 싸움군들로 준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1(2012)년 3월 중순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합동타격훈련, 주체103(2014)년 11월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관하부대들의 연합합동훈련 등 전투훈련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해군지휘성원들의 수영능력판정훈련,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의 사격경기대회, 군사학교 교직원들의 사격경기, 군종,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의 사격경기, 김정숙해군대학과 김책항공군대학 교직원들의 사격경기들이 련이어 진행되였다.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발기에 따라 명사수, 명포수운동이 힘있게 벌어져 전군이 들끓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는 적들의 그 어떤 군사적도발도 단호히 짓뭇개버릴수 있는 강군으로 더욱 역세게 준비되게 되였다.

우리 당은 또한 국방공업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인민군대무장장비의 현대화수준을 더욱 높여나갔다.

우리 당은 국방공업부문에서 우리 식의 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더 질적으로 만들어내도록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국방공업부문에서 1950년대의 군자리혁명정신으로 우리 식의 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최상의 수준에서 질적으로 생산보장하여 인민군대무장장비의 현대화수준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시고 새로운 첨단무기개발목표들을 제시해주시였다. 그리고 국방공업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면서 그들을 영웅적신화창조어로 적극 고무해주시였다.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식의 새로운 주체무기개발사업을 힘있게 벌려 짧은 기간안에 모든 타격수단들을 세계적수준에 올려놓을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우리의 국방공업은 적들의 그 어떤 현대적인 무장장비도 일격에 짓뭇개버릴수 있는 위력한 무장장비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는 자립적국방공업으로 강화발전되었으며 우리 인민들은 강력한 국방력의 보호를 받으며 삶에 대한 걱정없이 필승의 신심에 넘쳐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서고있다.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헌신과 정력적인 령도밑에 우리의 국방공업은 그 어떤 현대적인 첨단무장장비들도 마음먹은대로 팡팡 생산하여 나라의 자위적국방력을 물질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 나라의 군력을 억척같이 다져나갈수 있게 되였다.

국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친 우리 당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경제강국건설에서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온 세상에 남김없이 떨친것이다.

경제강국건설은 현시기 우리 당과 국가가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 기본전선이다.

우리 당은 우선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국가경제력을 비상이 높여나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자강력제일주의는 혁명과 건설에서 자강력을 제일로 내세우는 자강력중시사상이며 주체적혁명력량을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갈데 대한 자주적인 강국건설로선이다.

우리 당은 자강력제일주의에 의거하여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도록 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주에서는 우리가 만든 위성이 돌고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며 지하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철동차가 달리는 희한한 현실이 이 땅우에 펼쳐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경제를 기술집약형경제로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밀고나가면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건설은 사회주의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는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이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과시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국력을 강화하고 주체조선의 새로운 비약의 년대를 펼쳐나가는데서 건설을 매우 중시하시고 이 땅우에 눈부신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쳐놓으시였다.

그리하여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빛내이는 대기념비적건축물들과 현대적인 살림집들, 최상의 문명을 향유할수 있는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곳곳에 일떠서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구상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일떠선 려명거리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건축물들의 종합체이며 사회주의조선의 불패의 국력에 대한 일대 시위이다.

우리 당은 또한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우리 조국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려나갔다.

우리 당은 산림복구전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선포하고 년차별계획대로 내밀어 나라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였다.

전국도처에 양묘장들이 현대적으로 꾸려지고 군대와 인민이 산림복구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조국의 산들이 푸른 숲으로 전변되고있는 자랑찬 현실은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다.

참으로 국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놓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우리 조국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위용을 만천하에 떨치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비록 나라는 크지 않고 인구수가 많지 않다 해도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면 가장 강위력한 국력을 가질수 있으며 존엄높은 사회주의강국으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릴수 있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천만군민이 더욱 심장깊이 새긴 력사의 진리이다.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룡성번영하는 주체의 조국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살려는 우리 인민들의 리상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일편단심 당을 따라 혁명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우리 인민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훌륭한것을 쓰고살면서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상이 열백번 바뀌고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온다고 하여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만을 굳게 믿고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과 강성번영의 기상을 온 세상에 펼쳐나갈것이다.

실마리어 국력, 군사강국